

이우성 1루수 변신... 도전과 비상의 '날갯짓'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올 시즌 첫 100경기 100안타
확실한 1루수 향한 도전
눈치 안 보고 득기 있게 하겠다

알에서 깨어난 이우성이 비상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이우성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프에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캠프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 시즌을 보내면서 생긴 '타격 고민'을 풀고 있다. 1루수는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다. 오키나와로 떠나면서 이우성이 세운 제일 큰 목표는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캠프를 끝내는 것'이다. 캠프 주장을 맡은 만큼 팀을 우선 본 것이다. 이우성은 "코치님들이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신다. 주장이라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감독님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내 것만 하면 된다. 코치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전달 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선수들이 궁금한 것 물어보는 정도만 하고 있다"고 웃었다. "별일이 없다"고 해도 캠프에 참가한 고참급 선수이자 주장인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이우성은 "마무리캠프에는 신인 선수도 있고, 1-2년 차 선수도 많다.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원래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하게 된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하려고 한다. 나도 그랬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못 느낀다.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팀을 우선 이야기한 이우성은 개인적으로는 타격 정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11년 차인 이우성은 올

시즌 처음 100경기, 100안타를 넘었다. 이우성은 "야구 잘하는 선배, 후배들에게 100안타는 쉬운 것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 야구를 그만할 수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덕분에 100경기 나갈 수 있었고, 100안타를 칠 수 있는 기회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며 "시즌 돌아보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어렸을 때는 귀찮은 게 많았고, 외야에 슈퍼스타 몇 명 있으면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너무 감사하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결혼도 했고, 마음이 달라졌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었는데 몇 년 안 남은 야구 인생 득기 있게, 눈치 보지 말자고 해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득기 있게 타석에 서면서 가장 좋은 성적도 만들었지만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었다. 이우성은 "7월에 성적이 엄청 안 좋았다. 안 좋다는 느낌을 알고 있었는데 시즌 끝날 때쯤 그 이유를 알았다. 한 시즌 치르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다. 야구 잘하는 선배들은 왜 안 좋은지 자가 진단이 됐을 텐데 나는 야구를 잘한 적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며 "시즌 끝나고 연습하면서 안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알게 됐다. 코치님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습관을 더 알고, 좋았을 때 느낌을 머릿속에 마음 속에 저장하고 자가 진단 할 수 있게 연습하고 있다. 시즌 때 온 좋아서 안타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정립이 안 됐다. 타격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이번 캠프의 개인적인 목표다"고 밝혔다.



KIA 마무리캠프 '주장' 이우성이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타격 연습을 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KIA 외야에 비해 아직 확실한 1루수가 없는 만큼 이우성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의 조언에 이우성이 1루수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변화의 캠프를 보내고 있다. 이우성은 "지금 야구할 수 있는 자체가 감독님 덕분이다. 1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악물고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며 "잘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스텝이랑 땅볼 처리하는 것 등 다

른 부분은 있지만 수비 코치님이 차근차근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다. 득기 있게 할 생각이다"고 이야기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즌이었지만 KIA는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우성은 "동생, 선배, 친구들이 땀방 뚫고 나가면 같이 가게 된다. 그게 좋았다. 다른 팀 선수들과 이야기해 봐도 우리팀 타선이 무섭다고 한다. 누가 나와도 무섭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짧았던 게 진짜

아쉬웠다. 내년에는 주장인 (나)성범이 형부터 안 아프고 처음부터 다 같이 뛰면 진짜 팀이 잘될 것 같다"며 "여기에 있는 선수들 1군에 와서 뛰려고 마음먹고 훈련하고 있다. 부상 선수 없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조화 잘 되면 좋은 성적 낼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득점권 찬스 오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는데 기다려지기도 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wool@kwangju.co.kr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0일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 오늘 중국과 경기 승리는 기본... 부상을 막아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연승과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5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에 중국전의 목표는 승리뿐만이 아니다. 이기는 것만큼이나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는 일도 중요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펼친다. 기록이나 거친 몸싸움을 서슴지 않는 중국인데, 상대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클린스만호로서는 부담스럽다. 지난 1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 경기를 보면 중국 축구가 얼마나 거친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경기에서 옐로카드가 총 4장이 나왔는데, 모두 중국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특히 전반 19분 상대 역습을 저지하려던 수비수 장린펑은 공을 잡고 있던 보딘 팔라가 알아챌 수 없는 각도에서 깊숙한 백패스를 시도해 경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5-0 대승을 거둔 싱가포르전 후반 중반에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상대에 걸려쳐 그라운드에서 나뭇굴 때 클린스만 감독과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가슴이 동시에 철렁했을 터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났다"며 상대 선수의 행동을 두고 "큰 점수 차로 뒤지는 상황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파울이었다"고 짚기도 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최근 활약이 매서운 해외파들은 특히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A매치인 중국전을 마치면 유럽파들은 모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시즌 중반으로 접

어드는 각 리그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에서도 '혹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센터백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피로가 쌓인 만큼 특히 부상 방지에 신경 써야 한다. 김민재는 올 시즌 정규리그는 물론이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와 컵 대회까지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소화한 18경기 가운데 17경기를 대부분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여기에 중국전까지 뛰면 9~11월에 걸쳐 6차례 A매치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치게 된다. 대표팀 소집 직전 2주 연속 프랑스 리그 1의 팀에 선정될 정도로 물오른 기량을 보여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주는 10월 '이달의 선수' 상까지 받은 황희찬(울버햄프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치를 올리려던 부상은 더욱더 피해야 한다. /연합뉴스

양희영 '샷 이글' CME 챔피언십 우승

LPGA 투어 2023 시즌 최종전
우승 상금 25억9300만원

양희영이 '샷 이글'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 시즌 최종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양희영은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클럽 코르코스(파72)에서 열린 CME그룹 투어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타를 줄였다. 합계 27언더파 261타를 친 양희영은 2019년 2월 혼다 LPGA 타이랜드 우승 이후 4년 9개월 만에 통산 5승을 달성했다. 하타오카 나사(일본)와 엘리슨 리(미국)이상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3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린 완승이었다. 태국(3승)과 한국(1승)에서 열린 LPGA 대회에서 우승했던 양희영은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 200만 달러(약 25억9300만원)도 받았다. 또한 양희영은 시즌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이 대회에서는 고진영이 2021년과 2020년, 김세영이 2019년에 우승했다. 하타오카와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은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1개로 한 타를 줄였다. 반면 하타오카는 버디 2개로 2타를 줄이며 전반을 마쳐 양희영이 1타 뒤진 2위에서 추격하는 양상이 됐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13번홀(파4)이었다. 양희영이 친 두 번째 샷은 핀을 살짝 지나쳤지만 백 스피ンを 먹고 홀로 빨려 들어갔다. 이 샷 이글로 양희영은 단독 선두로 나섰다. 하타오카는 14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가 됐지만 16번홀(파3) 보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2위로 떨어졌다. 양희영은 17번홀(파5)에서 확실하게 우승에 쐬기를 박았다. 두 번째 샷이 그늘에 못 미쳐 경사를 타고 왼쪽으로 흘렀지만 어프로치 샷을 홀에 바짝 붙여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다. 2타차 단독 선두로 18번홀(파4)에 오른 양희영은 두 번째 샷을 홀 3m에 떨어뜨린 뒤 갤러리의 환호에 인사하며 여유 있게 그린에 올라갔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하타오카와 엘리슨 리가 먼저 돌아온 뒤 양희영은 버디 퍼트로 경기를 끝내 시즌 마지막 대회, 마지막 홀을 멋지게 장식했다. 시즌이 종료되면서 각종 타이틀의 주인공도 결



양희영이 20일 미국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챔피언십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됐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4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릴리아 부(미국)는 마지막 대회를 4위(21언더파 267타)로 마무리하며 생애 처음 상금왕과 함께 올해의 선수가 됐다. 14언더파 274타, 공동 13위로 마친 김효주는 시즌 평균 최저타수(베이트로피) 부문에서 경쟁했으나 아타야 티피꾼(태국)에게 넘겨졌다. 티피꾼은 최종전에서 5위(20언더파 268타)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고진영(2승), 유해란, 김효주에 이어 양희영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5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